무안군, 참전기념탑 준공…877명 이름 새겼다

6.25전쟁 ·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사업비 5억9000만원 투입 높이14.6m 가로8.4m 세로 4.1m

무안군은 지난 26일 6.25전쟁·월남전 참전기념탑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참전기념탑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제막식,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과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땀,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무안군과 기념탑 추진위원회가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이 기념탑은 높이 14.6m, 가로 8.4m, 세로 4.1m의 주탑과 참전용사 877명의 이름을 새겨진 명비로 구성됐다.

이동수 추진위원장은 "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탑 준공식을 계기로 이 공간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깨닫게 하는 숭고한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현장 캠페인

목포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등이 추가로 사용 금지됐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도·소매업(33㎡ 초과) 매장 등은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도 신설됐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군은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2. 1. 1. ~ 11. 30. 까지 영광사랑카드 수수료(0.25% ~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 이하(영세가맹점)이면서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신안천사김 수출 1억불 달성

우리나라 김 수출 1위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신안군은 신안군 압해읍에 소재한 '㈜신안천사김'이 올해 수출 1억불을 달성하여 오는 12월 무역의날 행사에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신안천사김은 김 수출 전국 1위의 굴지의 기업으로 2012년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공장 가동 첫해부터 수출 시작으로 2014년 수출 2천만불, 2020년 7천만불 달성 수출 기념탑을 수상하였다.

연간 생산하는 조미김은 1,900톤으로, 이 가운데 80%는 미국으로,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지금까지 5,000억원 이상의 조미김을 수출하여 매년 수출탑 기록을 경신 중인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김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받은 국제인증(USDA, HALAL, FSSC22000 등)만 9개로 특히, 세계5번째(국내최초)로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인증획득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며, 청정 신안 앞바다에서 옛날 방식으로 양식한 지주식 김을 원료로 120여개 품목의 유기농 김만을 수출하는 등 '매출 기준 전세계 유통기업 3위인 코스트코(미국)'의 최고 고객이기도 하다.

또한, ㈜신안천사김은 신안군 장학재단 2억여원, 복지재단 5억여원, 어려운 이웃 등 낙도지역 후원 5억여원 기부 등 이웃사랑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지방세 39억원 납부, 230여명의 종업원 중 50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안군과 상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에 위치한 국내최고의 신안천사김은 김 수출 1억불을 달성함으로써 전세계에 신안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민 채용과 다양한 기부를 통해 신안군 살리기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이는 지차체와 기업의 모범 상생사례로 평가 받고있다"면서 축하와 고마움을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함평군,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맞손'

함평군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도로교통공단과 지난 28일 원주시 본부에서 교통사고감소 및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함평군 친환경 생태자원 제공 및 지원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통 안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양 기관이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한농연, 영·호남 우호 통한 농업혁신 이끈다

영암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김종수)는 26일 산청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조규홍) 회원들을 영암군으로 초청, 영호남 친선 우호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암군 회원 60여 명과 산청군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환영행사에 이어 진행된 기찬묏길, 하정웅 미술관 등 영암군의 주요 문화관광지 탐방과 파프리카 농장 견학 등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두 단체의 변함없는 우정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선두적인 역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변화하는 농업기술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농업의 혁신을 통한 미래 견인을 위한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며 격려를 전했고, 이번 행사를 추진한 농업경영인들은 "현재의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농업 육성에 힘을 모으자"며 의지를 다졌다.

영암군과 산청군은 1999년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상호협력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